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3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7월 2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금속노조
22일 총파업
투쟁 돌입

노조파괴, 세월호, 통상임금.. 거꾸로 가는 세상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노조파괴범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뚝뚝하게 고개 쳐들고 다니고, 죄없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된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혼이 아직도 편안히 눈감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와 집권여당은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큰소리 친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자본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노동부는 지도지침을 만들어 자본에게 힘을 실어준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세상을 바로잡는 총파업

믿을 수 있는 건 노동자, 민중의 힘 뿐이다. 이미 정권과 자본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내보였다.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리하는 검찰, 세월호 특별법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새누리당, 통상임금을 걸레로 만들려는 자본과 노동부. 더 이상 이것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올해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매년 진행되는 임단투 총파업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임단투 승리 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내팽기친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특히, 대전충북지부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싸움도 벌이고 있다. 임단투의 통상임금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노조파괴 분쇄 투쟁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도 한 발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이럴수록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22일 우리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정권을 향하는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지치지 말고 가자!

올해 임단투는 휴가 전에 끝나기 쉽지 않아졌다. 특히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들도 쉽사리 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GM이 완성차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시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듯 하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노조파괴 투쟁은 벌써 3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세월호 진상규명도 지지부진하다. 올해 투쟁은 지치지 않고 질기게 싸우는 쪽이 승리한다는 단순한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치지 말자. 끝까지

노조파괴 분쇄! 2014임단투 승리!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 퇴진!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 일시 : 2014년 7월 22일(화) 14시 ● 장소 : 대전노동청 앞

노조파괴 분쇄! 노동자_학생 연대투쟁

지난 15일 대전 샘머리공원이 젊은 목소리로 가득했다. 그동안 지부에서 매주 월요일 촛불집회를 이어오던 장소에 활기 넘치는 대학생 동지들이 찾아왔다.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길을 나선 대학생 노동해방 선봉대 동지들이었다.

이 날, 대학생 선봉대는 지부 사무실에서 노조파괴 사업장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무법천지의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학생들은 더욱 힘차게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대전 샘머리공원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삼성전자서비스 서대전센터 앞 행진까지 이어졌다. 최근 서울 삼성본관 앞 노숙농성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함께 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행진 중간에 교통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 때문에 행진 대오 사이로 차들이 끼어들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416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 최후통첩

서울 광장에 모인 1만 5천 여 명의 시민들이 숨죽여 울었다. 유가족들도 울고,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모인 시민들도 울었다. 유가족 뒤에 자리 잡은 야당 의원들도 모두 울었다. 무대 화면에선 단원고 학생 고 김동협 군이 핸드폰으로 찍은 미공개 마지막 영상이 흘러 나왔다. 그는 “해경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나 살고 싶다”고 했다. 숨죽인 울음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약속으로 이어졌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를 거부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였다.

단상에 오른 단원고 8반 지상준 학생의 어머니 강지은 씨는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배안에서 헬기소리를 들으면서 ‘구해줄거야’라고 생각했을 아이들을 해경은 단 한 명도 구해오지 않았다”고 비통해했다. 강지은 어머니는 “어떻게 그 큰 배가 침몰했는지, 어쩌서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은 채로 아이들을 품에 보내야 했는지, 사고책임자와 관리감독한 사람들 등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누구지 아이들에게 설명해줘야 아이들은 눈을 감을 수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특별법이 되도록 도와 달라. 사랑하는 제 아들이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는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래군 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가급적 무던 특별법을 만들고 무기력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성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굴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다시는 세월호의 비극이 없도록 믿을 것은 국민의 힘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래군 위원장은 “지난 70여 일 동안 350만 명이 모인 서명의 힘과 유가족들이 농성에 돌입하자 다시 모여드는 국민의 힘, 단원고 아이들을 맞이한 그 힘이면 된다”며 “7월 24일 참사 100일이 되는 날 이 자리에 10만 명이 모이자. 100일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만 100일째 되는 날 유가족과 10만 명이 모여 오만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굴복시켜야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GM 사측, “상여금 통상임금에 넣자” 제시

완성차에서 처음으로 한국지엠 사용자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완성차 노사의 통상임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지엠 사측은 17일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연7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고, 확대된 통상임금을 반영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당 계산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시행일자를 2014년 8월1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40시간 시행 뒤에도 1년 연차를 25일로 제한하지 않고 근속연수에 따라 보장해온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적용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새로운 단협이 적용되는 8월1일부터 하자고 주장한다.

회사는 명절휴가비·개인연금·기술수당을 포함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제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부는 “확대된 통상임금은 당연히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하고, 고정·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완성차업계에서 회사측이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회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iswcool@naver.com



<7.15 노조파괴 규탄, 세월호 촛불집회>



<7.15 노조파괴 규탄, 세월호 촛불집회>



<7.15 노조파괴 규탄, 세월호 촛불집회>



<7.18 총파업 조직 현장순회_엔텍지회>